▣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1:30부터)
교사수련회 : 교회학교 교사수련회가 21, 22일 양일간 양평에서 열립니다.
청파장학금 : 오늘 청파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상자들은 오후 1시 세미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실천 :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입니다. 좀 더 남을 배려하고 거친 말을 삼가고 부드러운 말, 시원케 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예배	왕상 8:22-30 / 시 84 엡 6:10-20 / 요 6:56-69	2부 예배	창 23:16-20

오늘 식당 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최미자 유상진 황현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임옥기 안현숙 하미림 송형운 이유진 정재기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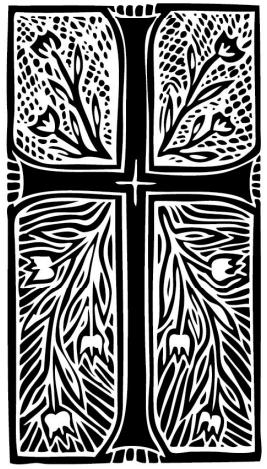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7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2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5. 큰 영화로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조금씩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황량하고 거친 세상을 푸르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움과 적대의 세월이 긴 만큼 그 골도 깊어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단의 일선에 선 젊은이들은 오늘도 무고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루 속히 분단의 철책을 거두어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4:6 ····· 인도자

♠ 교 독 문 ····· 41. 시편 97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김근종 권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73. 고요한 바다로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왕상3:3-14 엡5:15-20 요6:51-58 ····· 박민선 선생
II. 전 8:9-17 김 극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찬양대

말 씀 ····· **I. 먹고 마시는 지혜** ····· 이범석 목사
II. 삶의 모호함을 견디라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광일 이부용 김기성 이은정 김대영 이효심 김문주 김순자 김용길 최영혜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김지현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박예림 박종철 임옥기 박철국 이숙자 백성래
송인선 안세진 우순덕 유금주 윤순우 은종인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증자 김창경 이지훈 임형욱 임호성 장동훈 정은선 전영린 전인섭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정현모 조관행 홍선희 차혜심 노미향 최옥자 최은미 최진성
최영은 최철수 곽권희 허신열 허준호 홍복선

감사헌금

김대영 이효심 김미향 김형욱 리우림 박성균 홍주희 박재영 박해남 이범석
류정욱 이우엘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증자 김창경 무명16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정영선

녹색꿈헌금

류정욱 이지안 임형욱 장원호 박성희 무명4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혜 숙	박 성 희	쉼	쉼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베 다 니	박 홍 재	박 홍 재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나 사 렛	김 경 혜	홍 춘 숙		
다 메 섹	박 혜 경	박 혜 경		
두란노1	김 재 흥	오 자 영		
두란노2	김 재 흥	송 형 운		
두란노3	이 범 석	이 진 영		
두란노4	이 범 석	곽 상 준		
두란노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폭우

여름 한낮의 복판을 질주하여
폭우가 쏟아진다
나무들이 서슬 푸르게 폭우의 질주를 들려준다
천둥이 울린다
이웃 아이들이 신나라 소리친다
빠방! 꽈광! 빠방!
덩달아 컹컹! 개가 짖는다
목소리가 굵다. 덩치 큰 검은 개일 것이다
빠방! 꽈광! 빠방!
아이들이 소리지른다
천둥이 울리고, 폭우가 신나라 쏟아진다
의자에 앉아 졸던 나는 멍하니 깨어나
정신없이 단빵을 물어뜯는다
빠방! 꽈과과광! 빠방!
폭우가 쏟아진다
하늘 해방군의 집중 포격이다

– 황인숙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 양 …… 414. 이 세상은 요란하나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실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호함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다 함께: 아멘. 삶의 모호함 속에서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만 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 모호함 너머에서 가야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 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쉼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김동호 선생 신영신 집사

8	**영접위원**	윤석철 최철수 정원석 백혜숙 김금순 강순배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평화의 기도> 프란체스코

몸은 헐벗었지만 영혼은 헐벗지 않은 이의 노래. 자발적인 가난과 고통,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기꺼워함으로써 하느님으로 부유해진 이의 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느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이의 뜨거운 신심을 담은 노래. 이기적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걸림도 없는 이의 노래. 바로 성 프란체스코의 시 <평화의 기도>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썼으니 공개편지인 셈이었지요. 그 편지에서 나는 불경스럽게도 프란체스코를 '못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자'란 호칭보다 '못난이'란 호칭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설사 그가 다시 살아서 우리 곁에 온다 해도 그는 틀림없이 '못난이'라고 불리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프란체스코를 성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광光 나지 않는' 그의 삶을 본받으려는 이는 드물지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의 삶은 거지 혹은 광인의 그것이니까요.

거지이거나 광인이거나!

이것이 저 세인들의 평가입니다. 사실 프란체스코는 거지처럼 헐벗은 채 광인처럼 하느님에게만 몰입하여 살았습니다. 다만 그의 헐벗은 삶이야말로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만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은, 자발적 가난은 우리 자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나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일이 됩니다.

우스꽝스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동료 수도사들이 보는 앞에서 가난과 혼례를 올립니다. 가난이 나의 신부라며. 과연 광인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난과의 혼례는 곧 하느님과의 혼례였던 셈. 가난으로 자기를 비움으로써 그는 하느님으로 충만해집니다. 비어 있는 충만이지요!

…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프란체스코. 그의 삶의 뜨락엔 가난과 고통이 주렴처럼 드리워져 있지만, 그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가볍습니다. 겨울날 눈송이들 위에 내리는 또 하나의 눈송이처럼. 그는 욕심과 미움과 절망이라는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하듯 그는 중력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자유의 영토에 실존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둥이 악마처럼 울부짖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가 흔들림 없이 '평화의 도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기운이 내면에 가득한 사람이라야 평화를 노래할 자격이 있는 법. 만날 자기를 들들 볶는 사람이 타인에게 평화를 선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뭇 절제되어 있는 <평화의 기도>시편은 신의 도구로 살았던 프란체스코의 성실한 삶의 반영이기에, 더욱 심금을 울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 고진하, 「시 읽어주는 예수」(비채) 중에서